새 단장 마친 미륵사지 일원 공개



새 단장을 마친 익산 미륵사지 일원. 사진 왼쪽이 최근 해체 보수를 마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오른쪽은 실물 복원 동탑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년 동안 해체 · 수리 진행한
미륵사지 석탑 23일부터 공개
오는 4월 30일 준공식 예정

미륵사지전시관, 박물관 확대
8월 준공… 2020년 3월 개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익산 미륵사지 일원이 새 단장과 정비를 마치고 그 위용을 일반에 공개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 수리와 이를 위해 설치했던 가설시설물 철거, 석탑 주변 정비를 완료하고 3월 23일부터 석탑의 완전한 모습을 공개한다"고 3월 21일 밝혔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1998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일제강점기에 덧씌운 콘크리트가 노후화되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 · 수리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석탑의 해체조사에 착수하였고, 2017년까지 원래 남아있었던 6층까지 수리를 완료했다. 최근 가설시설물 철거와 주변 정비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말까지 그동안의 조사연구와 해체수리 과정을 기록한 수리보고서를 발간하면 미륵사지 석탑 관련 전체 사업은 완료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그동안 미륵사지 석탑의 수리 과정은 일반에 공개해 관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으나, 수리를 마친 석탑의 모습은 가설시설물에 가려 있어 어떤 모습인지 확인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가설시설물 철거와 함께 20년 만에 완전한 모습의 미륵사지 석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준공식은 오는 4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준공식 날짜인 4월 30일은 1999년 문화재위원회에서 미륵사지 해체를 결정한 날이며 미륵사지 석탑에 사리를 봉안한지 1380주년이 되는 날이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준공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한 지역 불교 지도자들과 정재숙 문화재청장,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등 정부 ·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불자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준공식은 익산시립무용단의 식전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사업 홍보영상 시청, 기념사, 축사에 이어 석탑으로 이동해 석탑 가림막 제막의 순으로 진행된다. 준공식에 이어 금산사와 전라북도 주관으로 법요식이 봉행된다.

이와 함께 기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3월부터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도립으로 운영되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지난 2015년 국립으로 전환됐고, 최근 새롭게 건립중인 박물관 개관에 맞춰 익산박물관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3월 12일 밝혔다.

기존 전시관 바로 앞에 새롭게 건립중인 익산박물관은 올해 8월 준공하며 연말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3월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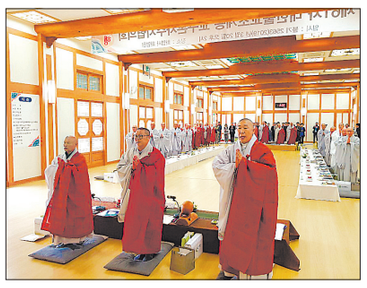
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보물 제1991호 사리내외호, 사리봉영기, 청동합 등)'를 비롯하여 국보 제123호 '왕궁리오층석탑 사리장엄구' 등 익산문화권의 주요유물 3만5000여 점을 보유할 예정이다.

또한 사적지 내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게 '히든 뮤지엄(숨은 박물관)'으로 설계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상기 국립익산박물관장 직무대리는 "익산박물관은 13번째 국립박물관"이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역사지구의 역사와 문화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익산문화권 대표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교 현안,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구례 화엄사서 61차 회의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 마곡사 주지)는 3월 20일 제19교구본사인 구례 화엄사에서 제61차 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종단 집행부에 요청했다.〈사진〉

화엄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회장 원경 스님, 부회장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을 비롯해 각 지역 교구본사 주지 15명이 참석, △문화재구역입장료 관련 홍보물 준비 △문화재 보수정비 지침 개정 △출가자 현황 및 대책 △불교신도 감소 대응방안 △백만원력결집(백년대계본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덕문 스님은 문화재구역입장료 관련해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 법 개정 과정까지를 담은 홍보 책자 배포가 시급하다. 국민들은 물론 정부와 국회 등 기관에 모두 숙지할 수 있는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교구장 스님들도 "책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홍보물이 필요하다" "정책 자료집 등을 배포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에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회의서는 최근 출가자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은 "절에 스님이 없다. 출가자가 1999년 532명에서 2018년 122명으로 줄었는데, 그동안 종단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르겠다. 제도 개선 등 현실성 있는 대응이 있어야 한다. 스님 없인 사찰도 없다"고 현 상황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했다.

특히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시대와 동떨어진 출가 대책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수행자는 산 속에서 참선하고 명상하는 사람으로만 기억되는 출가 대책을 우리 스스로 먼저 대폭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군법사 출가를 장려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그 많은 군법사들이 출가를 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 파악이나 인재 양성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각 부 · 실장 스님들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 전국교구본주지협의회의는 5월 30일 쌍계총림 쌍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화엄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백만원력불사' 내달 본격화

승려요양병원 · 계룡대영외법당 · 부다가야 사찰 건립

4월 17일 조계사서 선포식
한국불교 현안 과제로 설정
"불자들 신행 혁신 계획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백만원력불사의 청사진이 나왔다. 조계종은 승려요양병원과 계룡대 영외법당,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을 3대 과제로 불자들의 원력을 결집할 계획이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는 3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백만원력결집위원회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백만원력위는 백년대계본부 산하위원회로서 불자들의 신행 혁신과 보시문화 정착을 위해 조직된 기구다. 원행 스님은 지난해 총무원장 취임 이후 불자들의 원력을 결집할 수 있는 주요 과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꾸준히 피력해왔다.

이에 백만원력위는 승려요양병원(승려노후복지) · 3군본부 계룡대 영외법당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을 과제로 설정, 불자들의 모연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7일 부처님오신날 광화문 점등식에 앞서 오후 4시 조계사서 '백만원력결집모연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승려요양병원은 초고령화와 병고로 사찰에서 치료 · 간병이 어려운 스님들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불사다. 2016년 기준 만65세 이상 스님 비율은 16.3%로 집계됐으며, 2024년에는 36.1%, 2034년에는 54.8%에 이를 것으로 조계종은 내다보고 있다. 이로 인해 수년 전부터 조계종 내에서는 승려노후복지가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의료계 전문가들은 종단차원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조계종은 동국대의료원과 함께 승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300병상 · 1000평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을 계획 중이며, 약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립부지는 동국대 일산병원과 인접한 곳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 · 해 · 공 3군본부인 계룡대 영외법당은 군불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백만원력결집으로 모연된 불자들의 정성을 보태는 불사다. 계룡대 인근 주택단지가 개발되는 상황에서 영내 법당을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은 성지순례자들을 위한 안내센터 및 여행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자 추진된다. 부지선정, 행정절차, 공사방법 등은 구체화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백만원력불사는 기간이나 금액의 목표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을 제외한 전국 2000개 사찰에서 각각 50명이 동참하고, 이를 주위에 알려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모연은 불교계 공익법인 (재)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진행되며, CMS · 지로 ·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는다.

백년대계본부 사무국장 원묵 스님은 "백만원력불사는 무엇보다 불자들이 지극한 마음을 내 동참해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모연이 아닌 앞으로 불자들의 신행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이사 후보 덕문 · 대진 스님 추천

종관위, 110차 회의서… 자광 스님 후임으로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의 후임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대진 스님이 추천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성행, 이하 종관위)는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10차 회의를 열고 임기만료를 앞둔 학교법인 승가학원 및 동국대 임원에 대한 후임 임원 복수 추천을 진행했다.

종관위는 오는 7월 20일로 임기 만료되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후임에 덕문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대진 스님을 추천했으며, 3월 12일자로 사직한 동국대 감사 덕문 스님의 후임에는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과 초심호계위원 성화 스님을 추천했다.

그러나 자광 스님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지원 스님(前포교원장)의 후임은 후보가 추천되지 않아 보류했다.

이와 함께 종관위는 6월 1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 교육이사 법산 스님의 후임에 법산 · 선응 스님(동국대 외래교수)을, 교육이사 해주 스님 후임에 해주 · 정덕 스님(동국대 교수)을, 교육이사 효탄 스님 후임에 본각(前 중앙승가대 교수) · 능인 스님(前 중앙승가대 교수)을 각각 추천했다.

또 일반 이사 정안 스님 후임에는 정안 · 현묵 스님(한국명선차인회 사무국장)을 추천했으며, 일반 감사 우하 스님 후임으로는 우하 · 유곡 스님(前 동학사 주지)을 추천했다.

한편,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스님들은 3월 26일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214차 임시회에서 가결을 거쳐 각각의 학교법인에 추천된다.

신성민 기자

봉화산 정토원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기념 봉축행사

1959년 기해(己亥)년 4월 5일, 이때까지도 6.25 한국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정치는 자유당독재, 사회는 무질서의 연속, 경제는 보릿고개를 못 넘기며 계속되는 배고픔,
전체가 메말라 허덕이던 시절! 이와 같은 폐허화를 보살펴야 할 불교계는 비구대처 정화분쟁에
휘말려 있을 무렵 동국대학교 불교학도 31명이 4대 개발(심신, 사회, 경제, 사상)을 상징하는
민족의 생존도구인 호미를 든 관음성상을 김해 진영 소재 봉화산 정상에 봉안케 되었습니다.
종교는 국경이 없으나 종교인에게는 국경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이 불사가 금년 4월 5일,
꼭 60주년이 되어 이를 기리고자 아래와 같이 기념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시간이 허용되시면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축준비위원 일동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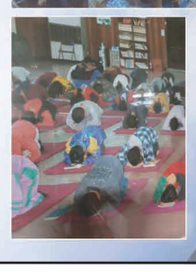
행사진행 일정 및 장소

제1차 행사 _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일시 : 2019년 3월 30일(토) 오후1시~6시 30분
- 장소 : 동국대학교 만해관
- 주최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세계불교학연구소

제2차 행사 _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봉축, 평화기원 법요식
- 일시 : 2019년 4월 5일 오전10시~11시
- 장소 : 봉화산 정상 호미 든 관음성상 제단
- 주관 : 봉화산정토원 신도회

제3차 행사 _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법회 및 '평화통일기념탑, 노인청소년문화 체험공원' 조성발의 설명회 후 오찬
- 일시 : 2019년 4월 5일 오전11시~12시
- 장소 : 봉화산 정토원 수광전 앞뜰
- 주관 : 봉축행사준비위원회





60년 전 1959년 당시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추진위원 명단 31인
이봉구 김지건 이현종 신병구 황연갑 김해동 박경호 김백만 김광영 이종복 김정애 김기업 손영익 김주태 조재진 김남식 박완일
김인덕 이천호 김두성 최충열 이재옥 박동기 강창순 안영근 박광도 최병주 김학순 김영기 배종일 선진규

당시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실무위원 명단
이융성 배한진 정극섭 나동영 심주종 지해식 이기용 김응조 김문길 한치훈 김기권 김삼현 주선응 김종민 박종대 최병식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기념 봉축행사 준비위원회

고문 서의현 대성 혜총 홍파 법타 법륜 월인 덕일 윤여중 최성봉 이봉구 전영화 장봉호 김영태 안영근 정지찬 이규범 삼학
권기종 최규일 박중선 이일웅 오현근 서윤길 이민홍 송재운 김덕영 원정 이성곤

공동준비위원장 손안식 배조웅 이장명 이재형 이수홍 양승찬 전안오 황재연 황충익 권오현 김덕수 김영준 이영호 라동영 홍영춘
이상번 김형균 이융성 김남식 홍외순 김상규 김태진 박광도 최병주 최두식 김성권 정대헌 이봉춘 김영만 김형중 고영섭 권탄준
이성균 박상철 박 순 윤정관 신관호 양경술 장사덕 김종열 백선기 정권화 박경준 하재길 김보성 차혜숙 김형태 박종철 심관호

준비위원 법성 영공 등명 길상 법공 법연 선근 강기출 정수덕 허남준 김말분 승규봉 선기 선건 전준호 변철호 최향숙 선광율
선광용 최춘호 최민정 심미조 박영동 이종서 김남일 장 익 정인호 이학송 주보연 백경선 한영규 권재우 김동수 김봉규 김민우
김보과 이지석 박영빈 김용섭 허준도 강은숙 강정자 강주이 강차곤 강춘아 강홍열 고주연 곽정현 구영애 권장희 길은옥 김나현
김대진 김도원 김미숙 김미애 김범석 김상철 김선옥 김선자 김수복 김순옥 김영란 김영숙 김점덕 김정미 김정분 김점선 김지호
김종화 김지원 김태길 김현빈 김현주 김혜연 김호규 김호대 김희면 김향자 남은실 남현주 류봉용 목정자 박덕규 박도원 박명수
박미경 박명숙 박미선 박미자 박상희 박선태 박세환 박영남 박영록 박영숙 박영옥 박정숙 박재봉 박재영 박보환 박갑석 박창환
박흥환 박제문 박종복 박판덕 박창호 박태식 박한순 박현혜 박호동 박희자 방성영 방영진 배남희 배둘남 배미선 배수정 백월선
백정례 백정자 본행화 서경숙 서기동 서순길 서유경 선분희 선종순 성순옥 손강숙 손성숙 손수형 손태환 송진호 신경숙 신석기
신순자 신용암 신정숙 심도문 심영순 심재덕 안경식 안귀연 안영미 안영은 안오례 안홍태 양미란 양안나 양호진 엄정란 오명주
오순옥 오재람 오재진 오혜정 우영환 우정현 유미경 윤축외 이경진 이구대 이동건 이상만 이상필 이상협 이수남 이수련 서혜진
이순옥 이우재 이영선 이은선 이의직 이인자 이인호 선광현 이재선 이정란 이정자 이준규 이진식 이호덕 이희대 이희용 임잠이
임준현 정귀련 정순진 장미애 장미연 장미옥 장수연 장순자 장은숙 장은실 장은주 장임순 전경자 전기병 전기연 전윤옥 전영숙
전영심 전유식 영 공 정석수 정숙이 정영애 정계자 정정옥 정진학 정형수 제효정 조규원 조영미 조은숙 류정길 주귀자 진옥주
차미승 최미혜 최민정 최병철 최양순 최영심 최영희 최옥순 최이숙 최성열
최정주 홍미화 홍강표 하명숙 한정자 최정인 홍경윤 황효진 정수미 윤충선
홍춘표 김용기 강용숙 권재인

협찬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관련 중앙 및 지방시민단체 일동

• 총괄실무책임 선진규(010-8864-7272)
김용표(010-8716-9308) 김해조(010-4241-0778)
김재엽(010-5212-4514) 연락 : (055)342-2991~2